

2027
중2-1
천재(정)

2027 중2-1 국어 천재(정) | 3(1)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기술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예상 출제 유형

해당 단원은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활용해 의도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원입니다. 따라서 피동 표현 방식과 그 효과를 묻는 문제,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방식과 그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.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의 방법을 정리하고 각각의 효과를 잘 암기해야 합니다. 또한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서로 바꾸는 문항,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서로 바꾸는 문항이 자주 출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1.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<보기>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?

- ㉠ 고양이가 쥐를 쫓다.
- ㉡ 쥐가 고양이에게 쫓기다.

<보기>

- ㄱ. ㉠은 피동 표현으로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강조된다.
- ㄴ. ㉡를 능동 표현으로 바꿀 때는 주어가 바뀐다.
- ㄷ. ㉠에서 '고양이'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다.
- ㄹ. ㉠와 달리 ㉡는 주어가 남에게 행위를 당하는 표현이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ㄹ ③ ㄴ, ㄹ
- 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

2.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'눈이 산을 덮다.'에서 '눈'은 행위의 주체이다.
- ② '산이 눈에 덮이다.'는 피동 접사 '-이'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다.
- ③ '산이 눈에 덮이다.'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주어가 바뀐다.
- ④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피동 접사 '-되다'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⑤ 피동 접사는 여러 개를 사용할수록 피동의 의미가 강해진다.

3. <보기>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- ㄱ. 모기가 윤서를 물다.
- ㄴ. 가설이 증명되다.

- ① ㄱ은 '윤서가 모기에게 물리다.'라는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.
- ② ㄱ과 달리 ㄴ은 주어가 행위를 제힘으로 하는 표현이다.
- ③ ㄱ에서 행위의 주체는 '윤서'이다.
- ④ ㄴ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가 사용되었다.
- ⑤ ㄴ은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.

4. 밑줄 친 서술어 중, 피동 표현을 만든 방법이 다른 하나는?

- ① 의자가 목수에 의해 만들어지다.
- ② 실이 바람에 의해 끊어지다.
- ③ 교과서에 물이 쏟아지다.
- ④ 아끼는 그릇이 깨지다.
- ⑤ 가설이 과학자에 의해 증명되다.

- ④ ㉔: 눈이 안대로 가려졌다.
- ⑤ ㉕: 그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다.

5. <보기>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㉗ 범인이 형사에 의해 발견되다.
 ㉘ 도둑이 경찰에게 쫓기다.

- ① ㉗과 달리 ㉘는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제 힘으로 하는 표현이다.
- ② ㉗는 능동 표현으로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을 나타낸다.
- ③ ㉗에서 '형사에 의해'는 생략할 수 있다.
- ④ ㉘는 ㉗와 달리 '-되다'를 사용하여 피동을 나타내고 있다.
- ⑤ ㉘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'도둑이 경찰을 쫓다.'가 된다.

7. 다음 중 <조건>을 모두 만족하는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<조건>

- 피동 접사를 사용하여 피동의 뜻을 나타냄.
- '-되다', '-이-', '-히-', '-리-'를 사용하지 않음.

- ① 문제의 원인이 밝혀지다.
- ② 그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다.
- ③ 윤서가 전교 회장으로 뽑히다.
- ④ 실이 바람에 의해 풀리다.
- ⑤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다.

6. ㉑~㉕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피동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? (정답 2개)

- ㉑ 음료수가 쏟아지다.
- ㉒ 사실이 밝혀지다.
- ㉓ 그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다.
- ㉔ 보물이 발견되다.
- ㉕ 동생이 누나에게 안기다.

- ① ㉑: 나무가 바람에 꺾이다.
- ② ㉒: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다.
- ③ ㉓: 수학 문제가 학자에 의해 증명되다.

8. 다음 능동 표현과 이를 피동 표현으로 바꾼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과학자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다.
→ 새로운 사실이 과학자에 의해 발견되다.
- ② 대장장이가 도끼를 만들다.
→ 도끼가 대장장이에 의해 만들어지다.
- ③ 낙엽이 산을 덮다.
→ 산이 낙엽에 덮이다.
- ④ 지호가 윤서를 밀다.
→ 윤서가 지호에게 밀리다.
- ⑤ 경치가 경미에게 보이다.
→ 경미가 경치를 보다.

9. <보기>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㉠ 형이 동생을 업다
→ 동생이 형에게 업히다.

㉡ 시우가 달걀을 삶다.
→ 달걀이 (시우에 의해) 삶아지다.

㉢ 바람이 실을 끊다.
→ 실이 (바람에 의해) 끊기다.
실이 (바람에 의해) 끊어지다.

- ① 피동 접사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.
- ② ‘삶아지다’는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‘ㅍ’이기 때문에 ‘-아지다’를 사용했다.
- ③ 피동 표현이란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.
- ④ 능동 표현에서 행위의 주체였던 대상이 피동 표현에서 생략될 수도 있다.
- ⑤ ㉠과 같은 피동 접사 ‘-히-’를 사용하여 ‘도둑이 경찰에게 쫓기다.’라는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.

10. <보기>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- ① ㉠의 ‘안 닦였네요.’에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였다.
- ② ㉡의 ‘안 닦으셨어요.’에서는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였다.
- ③ ㉠의 ‘안 닦였네요.’에서 능동 표현을 씬으로써 식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.
- ④ ㉡의 ‘안 닦으셨어요.’에서 피동 표현을 씬으로써 손님은 식탁에 초점을 맞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.
- ⑤ ㉠의 ‘안 닦였네요.’는 상대의 체면을 살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이다.

11. 인용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이다.
- ②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다.
- ③ 큰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직접 인용이다.
- ④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보다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.
- ⑤ 직접 인용은 조사 ‘(이)라고’를 사용하는 반면 간접 인용은 조사를 사용하지 않는다.

12.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꾼 표현 중에서 적절한 것은?

- ① 지아가 서윤이에게 “서윤아, 주말에 만나서 같이 놀자.”라고 말했다.
→ 지아가 서윤이에게 주말에 만나서 같이 놀자라고 말했다.
- ② 서윤이가 지아에게 “다른 약속이 있어.”라고 말했다.
→ 서윤이가 지아에게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.
- ③ 동훈이가 나에게 “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.”라고 말했다.
→ 동훈이가 나에게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.
- ④ 지후가 동훈이에게 “나도 같이 축구하고 싶어.”라고 말했다.
→ 지후가 동훈이에게 자기도 같이 축구하고 싶다고 말했다.
- ⑤ 윤서가 전화로 “거기에서 기다려야 해.”라고 말했다.
→ 윤서가 전화로 거기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.

13. 다음 문장을 직접 인용으로 바꾼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어제 지후가 나에게 오늘 꼭 영화 보러 가자고 말했다.

- ① 어제 지후가 나에게 “오늘 꼭 영화 보러 가자.”라고 말했다.
- ② 어제 지후가 나에게 “어제 꼭 영화 보러 가자.”라고 말했다.
- ③ 어제 지후가 나에게 “내일 꼭 영화 보러 가자.”라고 말했다.
- ④ 오늘 지후가 나에게 어제 꼭 영화 보러 가자고 말했다.
- ⑤ 오늘 지후가 나에게 “내일 꼭 영화 보러 가자”라고 말했다.

정답 및 해설

1. [정답] ③

ㄴ ㉔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주어가 '쥐'에서 '고양이'로 바뀐다.

ㄷ 주어가 제힘으로 행위를 하는 능동 표현인 ㉑와 달리 ㉔는 피동 표현으로 주어가 남에게 행위를 당하는 표현이다.

ㄱ ㉑는 능동 표현으로 행위를 하는 주체가 강조된다.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강조되는 것인 피동 표현인 ㉔이다.

ㄹ ㉑는 능동 표현으로 주어인 '고양이'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아닌 행위를 하는 주체이다.

2. [정답] ⑤

피동 접사는 하나 이상 사용할 경우 이중 피동 및 비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된다.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.

① '눈이 산을 덮다.'는 능동 표현으로 주어인 '눈'은 행위의 주체이다.

② '덮이다'는 '덮다'에 피동 접사 '-이-'를 사용하여 피동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.

③ '산이 눈에 덮이다.'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'눈이 산을 덮다.'로 주어가 '산'에서 '눈'으로 바뀐다.

④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는 '발견되다'와 같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'-되다'를 사용할 수 있다.

3. [정답] ④

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는 '-되다'이다. ㄴ은 '증명'이라는 명사 뒤에 '-되다'가 붙었으므로 적절하다.

① ㄱ은 이미 주어인 '모기'가 제힘으로 행위를 하는 능동 표현이다.

② ㄱ이 주어가 행위를 제힘으로 하는 능동 표현이다. ㄴ은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피동 표현이다.

③ ㄱ에서 '물다'라는 행위의 주체는 주어인 '모기'이다.

⑤ ㄴ은 '가설이 (~에 의해) 증명되다'로 부사어가

생략되었다.

4. [정답] ⑤

'증명되다'는 명사 '증명'에 접미사 '-되다'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.

① '만들어지다'는 '만들다'의 어간에 '-아/어지다'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.

② '끊어지다'는 '끊다'의 어간에 '-아/어지다'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.

③ '쏟아지다'는 '쏟다'의 어간에 '-아/어지다'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.

④ '깨지다'는 '깨다'의 어간에 '-아/어지다'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.

5. [정답] ③

능동 표현에서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필수 부사어가 아닌 '~에 의해'는 생략 가능하다.

① ㉑와 ㉔는 모두 피동 표현으로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표현이다.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하는 것은 능동 표현이다.

② ㉑는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표현인 피동 표현이다.

④ ㉔는 피동 접사 '-기-'를 사용하여 피동을 나타내고 있다. '-되다'를 사용하여 피동을 나타내는 것은 ㉑이다.

⑤ ㉔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'경찰이 도둑을 쫓다.'가 된다.

6. [정답] ③, ⑤

③ '기억된다'와 '증명되다' 모두 명사에 접미사 '-되다'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.

⑤ '안기다'와 '믿기지 않는다' 모두 피동 접사 '-기-'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.

① '쏟아지다'는 어간에 '-아/어지다'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고, '꺾이다'는 피동 접사 '-이-'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.

② '밝혀지다'는 '-아/어지다'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고, '풀리다'는 피동 접사 '-리-'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.

④ '발견되다'는 명사에 접미사 '-되다'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고, '가려졌다'는 어간에 '-아/어지다'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.

7. [정답] ⑤

‘안기다’는 피동 접사 ‘-기-’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으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문장으로 적절하다.

- ① ‘밝혀지다’는 피동 접사가 아닌 ‘-아/어지다’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.
- ② ‘발각되다’는 접미사 ‘-되다’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.
- ③ ‘뺏히다’는 피동 접사 ‘-히-’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.
- ④ ‘풀리다’는 피동 접사 ‘-리-’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.

8. [정답] ⑤

‘경치가 경미에게 보이다’는 ‘보다’에 피동 접사 ‘-이-’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. 따라서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꾼 문장이 아니다. ‘보이다’라는 피동 표현을 ‘보다’라는 능동 표현으로 바꾸고 있다.

- ① 주어가 행위를 당하고 있고, ‘발견’에 ‘-되다’라는 접사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으로 적절하다.
- ② 주어가 행위를 당하고 있고, ‘만들다’에 ‘-아/어지다’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으로 적절하다.
- ③ 주어가 행위를 당하고 있고, ‘뒀다’에 피동 접사 ‘-이-’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으로 적절하다.
- ④ 주어가 행위를 당하고 있고, ‘밀다’에 피동 접사 ‘-리-’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으로 적절하다.

9. [정답] ⑤

‘도둑이 경찰에 쫓기다’는 피동 접사 ‘-히-’가 아닌 ‘-기-’를 사용한 것으로 ㉠과 같은 피동 접사 ‘-히-’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.

- ① ‘-히-’, ‘-기-’와 같은 피동 접사를 사용하여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피동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.
- ② ‘-아/어지다’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때,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‘ㅏ, ㅑ’일 때는 ‘-아지다’를 그 밖의 모음일 때는 ‘-어지다’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다. ‘삶다’는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

음이 ‘ㅏ’로 ‘-아지다’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.

- ③ 피동 표현은 주어가 제힘으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능동 표현과 달리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표현이다.
- ④ ㉡, ㉢의 경우 능동 표현에서 행위의 주체인 ‘시우’, ‘바람’이 피동 표현에서 ‘~에 의해’로 바뀌면서 생략 가능해짐을 알 수 있다.

10. [정답] ⑤

㉠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(직원)의 체면을 살리고 자신(손님)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. 또한 상대(직원)의 부담도 줄이고 있다.

- ① ㉠의 ‘안 닦았네요.’는 ‘닦다’에 피동 접사 ‘-이-’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다. 따라서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표현이 쓰였다.
- ② ㉡의 ‘안 닦으셨어요.’는 능동 표현으로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하는 표현이 쓰였다.
- ③ ㉢는 피동 표현을 씬으로써 행위의 대상인 식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. 능동 표현은 식탁이 아닌 ‘직원’에 초점을 맞춘다.
- ④ ㉣는 능동 표현을 씬으로써 손님은 행위의 주체인 ‘직원’에 초점을 맞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.

11. [정답] ⑤

직접 인용이 조사 ‘(이)라고’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, 간접 인용이 조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. 간접 인용은 조사 ‘고’를 사용한다.

- ① 인용 표현의 정의에 해당한다.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과 글에 끌어 쓰는 표현이다.
- ②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쓰는 직접 인용과 자신의 관점으로 바꾸어 옮기는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다.
- ③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와 조사 ‘(이)라고’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방법이다.
- ④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닌 자신의 관점으로 바꾸어 옮기기 때문에 직접 인용에 비해 문장이 간결하고 매끄럽다.

12. [정답] ④

인칭대명사를 고려하여 '지후가 동훈이에게 자기도 같이 축구하고 싶다고 말했다.'로 바꾸었으므로 적절하다.

- ① 조사 '고'를 사용하여 '지아가 서윤이에게 주말에 만나서 같이 놀자고 말했다.'로 바꾸어야 한다.
- ② 종결 어미를 고려하여 '서윤이가 지아에게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.'로 바꾸어야 한다.
- ③ 인칭 대명사를 고려하여 '동훈이가 나에게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.'로 바꾸어야 한다.
- ⑤ 지시 표현을 고려해 '윤서가 전화로 여기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.'로 바꾸어야 한다.

13. 정답 ③

조사와 인칭 대명사를 고려하여 '오늘'을 '내일'로 조사 '고'를 조사 '(이)라고'로 바꾸었으므로 적절하다.

- ①, ②, ④, ⑤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.